

진 흙 속에서 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오랜 세월 사찰에서는 연을 심어 가꿔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 연꽃은 본래 있어야 할 연밭이 아닌 찻상 위에서 더 화려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연꽃을 즐기며 찻다 더우며 놓고 우려 마시는 연차 문화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연밭에 연꽃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밭 조성과 연꽃을 즐기며 찻다 우려마시는 연꽃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차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연꽃차 문화, 어떻게 봐야 하나?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뛰어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흔히 연근이라 불리는 뿌리줄기는 식용으로, 잎과 꽃은 차로, 연밭은 약용이나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 같은 연의 상품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연밭을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연꽃을 관광 상품화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7~8월이면 연꽃축제를 개최하는 사찰이 전국적으로 10여 곳이 넘는다. 무안군 백련대축제나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인취사 백련시사회, 봉선사 연꽃축제, 봉원사 연꽃축제 등은 매년

'버릴 것 하나 없다'...지자체 사찰 등서 대량 상품화 웰빙 열풍에 신앙적 의미 사라지고 즐기지만 선인들 연향차 즐겨, 즐기 꺾는 행위 안 좋아

수백, 수천 명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연꽃축제가 번성할수록 정자 연밭에서는 연꽃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연꽃차를 만들기 위해 채 피지도 않은 연꽃을 즐기며 자르는 것은 물론, 꽃이 채 피기 전의 연꽃을 대량으로 채취해 꽃잎에 차 주머니를 넣고 실로 동여맨 뒤 냉동실에 넣어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불가(佛家)에서 연꽃은 생명의 근원이자 불교의 신앙체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화엄경탈현기>에

서 향기(香)와 깨끗함(潔), 맑음(淸) 정갈함(淨)을 상징한다고 했던 연꽃이 언제부터인가 '웰빙'과 '건강'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사시사철 즐기는 대용차로 변질된 것이다.

그렇다면 연차, 연꽃차를 만드는 이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부생육기(浮生六記)>에서는 연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부생육기>는 청나라 말기 소주(蘇州)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이자 수필가인 심복(沈復)이란 사람이 쓴 자서전으로, 여기에는 아내 운(芸)이 연꽃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해질녘 연밭으로 가서 막 꽃잎을 접으려 는 꽃송이를 살며시 열고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에 찢은 차를 화심(花心)에 넣어둔다. 이튿날 아침 꽃잎이 반쯤 피었을 때, 꽃잎이 다치지 않게 살며시 차를 꺼내 샘물을 끓여 차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 차는 향기가 유난히 좋았다.'

명나라 고원경이 쓴 <운림유사나 명나라 도옹의 <고관어사>에 말하는 연꽃차 만드는 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연꽃차의 모습은 오늘날처럼 연꽃을 직접 따서 차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꽃 속에 찾음을 넣어 향이 배게 한 후 그 차를 불에 쪄서 우려 마시는 '연향차(蓮香茶)'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차 문화에 대해 해우 전통차재 다교육원의 해우 스님은 "연꽃을 즐기며 꺾어 차로 만들어 나누어 마시는 것이 분위기가 있는 찻자리인 양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래 화차(花茶)는 계절에 맞는 차의 향을 가미해 즐기는 대용차의 일종이므로, 연꽃이 피는 기간이나 종교적 행사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여법한 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을 대량 재배하거나 또 이를 즐기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상생계를 지키는 불가에서조차 단지 향을 즐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연꽃을 꺾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①

조선-다시(茶時) 일상화, 연담 같은 선승 나와 중국-큰 다상들 출현, 사회적 활동 많아

왕실에서는 변함없이 갖은 의례(儀軌)에서 진다의례(進茶儀禮)를 빠뜨리지 않았고 다식(茶食)도 함께 썼다. 다시(茶時)는 일반인들도 평상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 절차로 인식됐다. 차츰 유행하는 새로운 화풍의 선비들도 차를 즐겼으니 순암, 안정복도 차인하였고 연담이나 지환화상 같은 선승들이 차 정신을 지켰으니, 선가(禪家)의 차는 식을 즐겼다.

중국의 문인들도 차가 없이는 작품 활동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시문과 저서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즈음부터 특기할 것은 규모가 큰 다상(茶商)들이 출현해 차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일본에서는 대전선사가 태어났다.

- ① 김인겸(1707~1772): <일동장유기>에 다모(茶母)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 차도 마셨다.
- ② 안정복(1712~1791): <잡동산이(雜同散異)>에서 혼례 때의 다례(茶禮)와 차 마시는 것을 기록했다.
- ③ 외교상의 의례 때 쓰인 다례에 관한 기록이 많이 전한다.
- ④ 숙종 45년 의계에 다모 2명이란 기록과 송화다식을 준비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다.
- ⑤ 연담대사(1720~1799): 차를 즐겨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다.
- ⑥ 지환화상: 화엄사 주지를 지냈으며 범음집(梵音集)에 '다각(茶角)

의 축원문'에 대해볼 때 불상에 유차(乳茶)를 올린다고 썼다.

⑦ 최눌(1722~1795): 차를 즐겨 다시도 남겼다.

⑧ 청사(淸使)의 공물 중에는 범라다반(斑羅茶盤)이 들어 있다.

⑨ 청나라 오진사(吳振臣) 등이 찬술한 것으로 다목(茶木)을 분(盆)에 이식해서 꽃이 피게 하는 내용을 실고 있다.

⑩ 차를 즐겨 궁중에서 다연(茶宴)을 자주 거행했고 왕공대신들이 게 채를 나누어 주었다. 차의 산지를 답사하고 여러 곳의 명차를 직접 마셨으며 시를 지었다.

⑪ 조설근(1715~1763): 그의 <홍루몽>에 다시가 많이 나온다.

⑫ 이린: 청대 다상(茶商)으로 200여 년간 명성을 지켰다.

정유하: 함흥년간에 상해에 다호(茶號)를 내고 동생 유생(裕生)과 함께 다계에 활약했다.

왕진화: 다업을 크게 일으켜 박람회나 농공상부의 일등상을 수상했다.

⑬ 기운(1724~1805): 우루무치에 귀양 갔다 온 후 <우루무치잡기>에서 다사(茶事)를 썼다.

⑭ 원매(1716~1798): <수원시화(隨園詩話)> 등을 남겼고 차를 아주 즐겨했다.

⑮ 대전선사(1719~1801): 상국사(相國寺)의 스님으로 매다옹(賣茶翁)과 친하게 지냈으며 그의 차 정신을 이어받았다.

■ 삼국시대 예절도대학

◎ 표는 약(abou)

한국	중국	일본
1707 김인겸(金仁謙)의 출생 ①	1704 전당시 찬집	
1712 안정복(安鼎福)의 출생 ②	1705 송주다미사 폐지	
◎ <통문관지(通文館志)> 간행 ③	1710 <민유기(閔遊偶記)> ④	
1719 진연의례(進宴儀軌) ④	1711 고종(高宗)의 출생 ⑤	1719 대전(大典) 선사의 출생 ⑥
다시(茶時) ④	1715 조설근(曹雪芹)의 출생 ⑦	강호시대
1720 연담(蓮潭)대사 ⑤	1716 강희제(康熙)의 출생 ⑧	1724 신정백석(新井白石)의 죽음
1721 범음집(梵音集) ⑥	◎ 다상들의 활동(이린, 정유하, 왕진화) ⑨	
1722 최눌(崔訥)의 출생 ⑦	1724 기운(奇運)의 탄생 ⑩	
삼남(三南)의 양전사목(量田事目)에 민원	◎ 원매(袁枚)의 활동 ⑪	
1723 공물에 다기 포함 ⑧		
1725 다시(茶時)		

녹차 기호에서 기능성음료로 거듭나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87건

최근 10년간 기능성 녹차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허출원 내용도 기호성 음료에서 기능성 음료로 변화하고 있음이 통계청 집계 결과 밝혀졌다. 특허청에 등록된 녹차 관련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1994~1999년까지는 매년 10건

미만인 것이 2000년 18건, 2001년 17건, 2002년 10건, 2003년 13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특허출원 87건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특정 영양성분을 향상시키거나 항비만·콜레스테롤저하·니코틴 제거 등의 효과를 강화하는 등 사용재료에 특징을 가한 것이 55건을 차지했다. 녹

차 첨가물로는 인삼, 어성초, 매화 등의 식물성 성분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출원인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이 44건, 기업이 24건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건, 국가연구기관이 3건, 영농조합법인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999년 이전에 주로 기업과 국가연구기관에 의해 출원이 이뤄지던 것에 반해 2000년 이후에는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녹차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021722-7777 / 팩스: 021722-7845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어낸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상권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하권

곧 발간됩니다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정 보급!!

기초교리

법요집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1. 삼귀의
- 2. 전양합니다
- 3. 반야심경
- 4. 인경
- 5. 청법가
- 6. 법문
- 7. 정근
- 8. 발원 및 축원
- 9. 사용서원
- 10. 사회가
- 11. 기터찬불가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업
- 13. 삼학
-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 16. 사성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심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크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과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크스님, 운허크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